

베드로전서 3-5
Tape #C2631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now to First Peter chapter three as Peter addresses himself to the wives? This particular section goes back to verse thirteen of chapter two,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전하는 인삿말로 베드로 전서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Submit yourself to every ordinance of man for the Lord's sake: whether to king as supreme; governors, unto them sent toward the punishment of evildoers, so is the will of God, that in well doing you may put to silence the ignorance of foolish men (2:13-15):

이 특별한 단락은 2장 13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2장 13-15절에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the idea of submitting to one another in love. And so he talked about, first of all, the servants submitting themselves unto their own masters, Christ leaving us an example.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순복 하라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종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스스로 순복 하라는 것입니다.

And now, to wives 그리고 이제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Likewise, ye wives, be in subjection to your own husbands; that, if any obey not the word, they may also without the word be won by the conversation or behavior of the wives (3:1);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Or the lifestyle of the wife. This particular Greek word is a difficult word to translate. The old English word was conversation, which doesn't mean verbal but it means your lifestyle. And so it's a word that has lost its meaning through the years when this translation was made. So you can translate that "behavior" or "lifestyle" or "manner of living." So as Paul wrote to the Corinthian church, I don't need that anyone should write letters of commendation for me because you are my living epistles known and read of all men. 어떤 독특한 그리스어 단어는 해석하기에 아주 쉽지 않습니다. 옛 고어는 '대화'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이 대화란 단어는, 말이라는 의미보다는 '생활방식'을 뜻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었지요. 그러니까 행동이니, 생활 방식이니..또는 삶의 예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 너희에게 말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Our lifestyle testifies to what we believe. And more people are brought to Christ by the observing of the Christian life as you live it, than are converted through just someone laying the four spiritual laws on them.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그대로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놓아 둔 사 영리의

교리를 보고 개종하기 보다는, 우리들이 사는 방식을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게 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We were talking with a missionary who is in the Philippines and has a ministry basically to the Moslems. And he talked of the difficulty of the converting of a Moslem because for a Moslem, it is a capital offense to convert to Christianity. He is and can be put to death by his family members if he leaves the Islam faith and becomes a Christian. It is a capital offense to convert a Moslem. But, he said, in order to convert a Moslem, they must see Christianity in action in your life. You can't do it with words; they have to see the Gospel demonstrated in your life. They watch. They observe, and then, he said, they have to see a miracle and answer to prayer. And these are the things that convince the Moslem of the truth of Christianity. 우리는 모슬렘에 본부를 두고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전도자와 함께 얘기 했었습니다. 그는 이슬람 교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교로부터 개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얘기 했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규율을 위반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떠나 개종한 자는 그의 가족이나 인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도를 개종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 되는 것을 그들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또 강조하기를, ' 그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아야 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목도 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신 시키는 방법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So Paul is declaring that our lifestyle is all-important. You wives who have unbelieving husbands, you're more apt to convert them by your lifestyle than you are by putting tracts in their peanut butter sandwiches. So that when

they bite into the sandwich, they get the word and they pull it out of their mouth and they read, God loves you, you know. So it is the lifestyle, the way we live becomes the witness of what we declare. 바울은 우리 삶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을 회심 시키는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남편들의 식사 때마다 굳이 말씀이라는 메뉴를 첨가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을 때, 그들은 말씀을 대하고 그들의 입에서 그것을 꺼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읽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One of the weaknesses of the church is the lack of the positive lifestyle of the believer, professing one thing and living another. That, of course, we call hypocrisy and that has been the bane and the curse of the church. So how we live is extremely important, just as important as what we say. 교회의 약점중의 하나는 긍정적인 삶의 방식이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들,, 그리고 하나됨이 결여된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독이요 저주요 위선이라 부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While they behold your chaste lifestyle with reverence. Whose adorning [or beauty] let it not be the outward the fancy hairstyles, the wearing of gold, or the putting on of fancy clothes (3:2-3);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I could get in big trouble at this point. Not my wife, I'm not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 television station locally here. "Whose adorning let it not be the outward adorning with the fancy hairstyles, the wearing of gold, putting on of fancy apparel." 아마도 이 말을 하면 나는 큰 곤경에 빠지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의 아내를 의식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 주변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머리와 의복으로 외모를 장식한 것이 아닌 금으로 치장하거나 이것 저것 주렁주렁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But let it be the hidden man of the heart, in that which is not corruptible, a meek and a quiet spirit, which in the sight of God is very valuable (3: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The true beauty is an inner beauty, not an outward beauty. Now, there are some women who are outstanding artists, and they can paint a beautiful face. It takes them awhile; it takes longer as the years go by. There's an Old Swedish proverb, Good looks don't last, good cooks do. And the idea is to encourage the young men not to look for a pretty face but to look for a good cook.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아주 훌륭한 여성 예술가들 중에, 그 아름다운 얼굴에 단장이 아닌, 분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 왔겠죠, 나이가 들어 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옛날 스웨덴 격언에 이르기를, '여자의 미모는 속히 잊어도, 좋은 요리사는 오랫동안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 이르는

교훈의 말로, 얼굴이 이쁜 여자를 쫓아 다니지 말고 부엌 살림 잘하는 여자를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But the true beauty, beauty that doesn't fade, the beauty that grows with years is that inner beauty. Some of the most beautiful people in the world, that beautiful inner beauty; you love to be around them because there's just such a beauty that comes forth from their lives. And Peter is saying recognize that that is the true beauty. The true beauty isn't that which you put on outwardly but the true beauty is that which is inward, which shines out.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세월과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되도록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바로 그들의 삶으로부터 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외면적으로 무엇을 치장한 것이 아닌 내면적인 아름다움으로부터 빛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I do not believe that Peter is intending here to issue a prohibition against the ladies looking nice. I don't think that this is a prohibition as some have interpreted it to be of wearing gold apparel or things of this nature. Not intended as that at all. The intention is just that you recognize that true beauty is inward. That which God values, the meek, the quiet spirit which in the sight of God is very valuable. 나는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매들이 외면적으로 예쁘게 보이는 것을 무조건 금하려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런 것들이나 금으로 치장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단지 참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잠잠함으로 주를 바라는 영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For after this manner in the old time the holy women also, who trusted in God, adorned themselves, being in subjection to their own husbands: Even as Sarah obeyed Abraham, calling him lord (3:5-6):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 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Now I don't expect that you women are going to go this far as to call your husbands "lord", unless it's tongue-in-cheek. And interestingly enough, Sarah had and asserted her place, too. I mean, it wasn't a --it was a two-way street. When she was upset over Ishmael mocking her little boy, she said to Abraham, "You get rid of that woman and her child." And Abraham, though it hurt him, got rid of Hagar and Ishmael. So you, husbands don't try to pounce on this scripture and use it as a club to beat your wives in submission. Marriage is a give-and-take proposition and it is an understanding. 나는 모든 자매들이 자기 남편을 부를 때 농담으로라도 '주인님' 이라고 칭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라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고, 여종 하갈과는 상호간에 이익을 주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녀의 아들 이삭을 괴롭혔을 때 그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자와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은 아브라함에게겐 상처가 되는 일이었지요. 모든 남편들은 이 말씀으로 말싸움을 하거나, 여러분의 아내를 괴롭히는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생활이란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참된 이해입니다.

Now of course with Peter, interestingly enough has quite a bit to say to the wife. And if you read it in Amplified, I think these guys were male chauvinists because they really jump onto this and amplify it almost to an

extreme. Peter has quite a bit to say to the wives but he has very little to say to the husbands. Interestingly enough, Paul shares pretty much equally; has quite a bit to say to the wives but then he has also quite a bit to say to the husbands, as far as the marriage relationship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in marriage.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꽤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관주설명을 읽어보면, 당시 남자들이 남성우월주의자 였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서 거의 극단적인 사고로 흐르거나 혹은 지나친 경향을 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부분에서 균형 있게 가르치려 했지만, 그래도 결혼생활과 서로에 대한 관계형성에 있어서는 남편들에게보다 아내들에게 더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But,

you are the daughters of Sarah, as long as you do well, and are not afraid with any amazement (3:6).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Now that's a peculiar phrase, "Not afraid with any terror," and I don't understand what Peter is saying by that. Maybe some of you have some ideas you can share with me. 이것은 좀 희한한 구절입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실 베드로가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 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저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Having devoted six verses to the wives, he now devotes one to the husband. 6절까지의 말씀을 아내들을 위해서 한 후에 베드로는 이제 남편들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Likewise, ye husbands, dwell with them according to knowledge, giving honour unto the wife, as unto a weaker vessel, and as being heirs together of the grace of life; that your prayers

be not hindered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Getting along; you know our prayer life can be hindered by friction within the home. And so it's important that there be a harmony within the house. There's an important, that the husband recognize the weaknesses of the wife and honor her as a weaker vessel; watching over her, taking care of her, shielding her. 사노라면, 우리의 기도생활에 가정 생활로 인한 마찰로 인한 방해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깨어지기 쉬운 그릇 같이 아내의 연약함을 남편이 감싸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돌아보고 보호해 주며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As I have said, basically in marriage God has two rules: one for the wife, one for the husband. In giving two rules, He keeps it simple so that it's almost impossible to say, Well, I forgot the rule. He's giving you just one so you can't forget. And in giving the rule, God was thinking of the other. 늘 말해 왔겠지만, 결혼생활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규율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에게, 또 다른 하나는 남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절대 '그 법을 잊었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규율이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So when He said, "Husbands, love your wives, as Christ loved the church" (Ephesians 5:25), He knew that a woman's greatest need was that of knowing that she is loved supremely by her husband. And the woman is always fishing for the affirmation of this. Honey, do you love me? Honey, do I look nice? Do I look sharp tonight? Is this, you know, do you like this outfit? And

she's always fishing for "Honey, you're beautiful. I love you. You're everything to me." She's needing this assurance and she fishes for this assurance because she needs the security of knowing that she's loved.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 하심과 같이" (엡5:25)라고 권면했습니다. 자매들에게 있어 가장 큰 필요는 남편들에게 흡족히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미끼를 던집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나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요. 저 근사해 보여요? 이 옷은 어때요? 당신 맘에 들어요? 그 뿐이 아니죠.'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 이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 한다구요.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지금 확인 받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 받고 있음에 대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마음에 확신을 갖고 싶은 것이죠.

Now Peter is saying, Honor her knowing that she's weaker. Give her that security; give her that strength. You are the strong one, give her that strength. Let her feel the protection; let her feel secure; your big, strong arm around her. And she feels that security and she needs to feel that security. 베드로는 가르치기를, 우리의 아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보호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우며 격려해 주라는 말입니다. 남편들이여,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워주고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의 든직하고 강인한 손으로 그녀를 감싸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그녀는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함 이니까요.

And then the Lord said to the wives, "Submit yourself unto your own husbands" (Ephesians 5:22). And God knew that guys have this stupid male macho image of themselves and that they've got to feel that they're strong and powerful and in control; that they're running the show. And a challenge of their authority is a real threat to their manhood. And so in the challenging of the

authority, they then feel they have to assert their manhood. And big boys don't cry; that is, big boys aren't emotional.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하십니다.(엡 5:22) 하나님은 남자들이 사내다운 모습에 대한 특유의 환상을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강하고 힘이 센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그들의 남성관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 우겨대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죠,, 다 큰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감정적이면 안돼.

And so to assert my manhood, I become very strong, cold and aloof. "I'm running the show and I don't need you and I don't need anybody else. I can do it myself," you know. Oh boy, what that does then is just compound the insecurity of the wife that cause her to challenge you in the first place. And you can get a horrible cycle going here as it works against the marriage to destroy it. Because the more cold and aloof you are, the less secure she feels. The less secure she feels, the more she challenges your decision. The more she challenges your decisions, the colder you become and, you know, and so you can just tear a marriage apart. 나의 남성관을 내세우기 위해, 나는 매우 강하고 냉정하고 냉담했습니다. 나는 과시하기 위해 달리기를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한건 아니야. 아니 당신 뿐 아니라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진 않아. 나 스스로도 이것들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여, 바로 그것이 자매들로 하여금 복잡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자매들이 당신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이런 끔찍한 고리는 계속 반복하게 되고 결국 당신의 결혼생활을 파괴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점점 더 냉담해지고 더 차가워지며, 그럴수록 당신의 아내는 안정감을 덜 느끼게 되니까요. 그녀의 안정감이 감소될 때, 그녀는 또 그럴수록 당신의 결정에

대해 더욱 도전하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결정을 도전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 더 냉정해 지고, 바로 이것이 당신의 결혼 생활을 갈라 놓는 부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And so these are important rules. They're basic to a good marriage, because the more the wife submits to her husband, the easier he finds it to show his love. The more he shows his love, the easier she finds it to submit to him. 이것은 우리들의 결혼생활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규칙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결혼생활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가 그녀의 남편에게 더 순종하면 할 수록 그는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법을 쉽게 찾게 될 것이고,또 남편이 그의 사랑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치를 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Now he may be stupid, he may lose everything, but he's here and he loves me and, you know we're together, we'll make it. But if you're cold and aloof; this jerk making a stupid mistake and he's probably going to take off when he has lost everything. He'll be gone and then I won't have anything. What am I going to do? And she feels secure so she has to challenge everything that you do, everything that you say. 남편이 좀 모자라도, 그래서 웬지 모든걸 잃을 것 같아도, 부인들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고 또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함께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얘기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차갑고 냉담하게 군다면; “이 사내가 아주 멍청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면 떠나려고 하겠죠. 그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게 되겠지만 내가 그렇다고 달리 원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어찌겠어요...”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내들은 안정감을 느낄 때야 비로소 남편들이 말하는 모든 것,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격려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So these are basic simple rules. And always as far as the wife, it is compound to the husband. To the husband, it is the honoring and the loving of his wife. And when it is working, it becomes a beautiful combination, and your lives can be enriched and your prayers effective. “Heirs together. We are heirs together of the grace of life.” 아내와 남편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실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남편에겐 자랑스런 일이고, 이것이 잘 지켜질 때, 비로써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한 삶이야 말로 삶을 운택하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영향력 있게 하는 것이지요. ‘함께 유업을 얻을 자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을 함께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There is no kind of a hierarchy in the spiritual realm. The men do not have an advantage over the women or vice versa; as far as in Christ, we are all one. So anybody who’s looking for the superior sex or anything else, you will never find it in Christianity. For in Christianity, it removes any kind of barriers that exists between people. And we all come the same way to the same Lord to receive the same grace. And we are all one, heirs together of the grace of God. We share together equally in the things of the Lord. “For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bond or free: Christ is all and in all” (**Colossians 3:11**). 영적인 왕국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우월하지도 않으며 여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 누가 혹시 특별한 성적 관계라든가 혹, 그런 어떤 것을 기웃 거리고 있다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장벽을 제거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같은 주를 모시고 같은 은혜를 받았으며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함께 얻는 자들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것들을 똑같이 함께 나눕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28)

Finally [addressing now both], be of one mind, having compassion for one another, love as brethren, be pitiful (3: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Now that word has changed in the usage, too. It would better be translated “full of pity.” You see that’s what it’s actually saying, pity-full. But we’ve come to, you know, think of pitiful, as you know a poor cat that’s lost an eye or something. So “be full of pity”, or another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is tenderhearted. Be a softie; be tenderhearted. I pray that God will always grant to me a tender heart, a heart of compassion. To be like Jesus I must have it. 여기 이 단어의 용법이 바뀌었는데, 이 말은 ‘동정심에 가득찬’ 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원 의미는 ‘동정심으로 완전히 마음이 채워져 넘침을 뜻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다’ 란 눈 한쪽을 잃어버린 떠돌이 고양이나 다른 것에도 쓰이는 말이지요. ‘ 동정심으로 가득 찬’ 의 뜻은 그리스어의 다른 번역으로는 ‘인정 많은, 다정 다감한’ 이란 뜻입니다. ‘부드럽고’ ‘ 마음씨가 고운’ 것을 말하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인정과 연민의 마음을 내게 항상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내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How many times you read in the Gospel, "And Jesus looked upon them and had compassion on them." He was tenderhearted. He was a soft touch. Anybody could get to Him. He was always moved by the needs of people. And

may God help us to be tenderhearted, not to become callused or indifferent to the needs of people around us but that we might have tender hearts, full of pity.

‘ 예수께서 그들을 둘러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대합니까. 주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다가오는 분이셨지요.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동정심으로 가득찬,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겠습니다

and be courteous (3:8): 겸손하며

Beautiful Christian trait: courtesy. It doesn't hurt, but it pays big dividends. How important to be courteous.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결코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으며 오히려 큰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겸손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Not rendering evil for evil (3:9), □□ □□□ 갚지 말고

Now that's what the natural man would like to do, isn't it? I will get even with you "Evil for evil." ‘ 악으로 악을 갚겠다’ 이것이야 말로 무신론자들의 방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조차도 품어야 할 것입니다.

or railing for railing (3:9): □□ □□□

Some woman really railed on me this morning, now it isn't the first time. Every time they let her out, she comes around here and rails on me. Couple of Sundays ago, she was throwing clay pots out on the patio railing. This morning, she came as I was greeting people at the end of the second service. And I was greeting couple of young men first time they were here, and they were telling me how much they enjoyed the service. She comes up and grabs me and starts

calling me a filthy viper and all kinds of stuff, you know. Just really railing on me. And it would have been easy to have railed back but the poor woman is mentally disturbed. 어떤 여자 분이 오늘 아침 저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하면 바깥으로 데려가긴 하지만, 그 여자 분은 늘 이곳을 서성이면서 저를 비난하곤 합니다. 몇 주전에는, 뜰 난간에 있던 진흙화분을 던졌습니다. 오늘아침 내가 2부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그녀가 제게 왔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온 젊은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 젊은이들은 오늘 예배가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로웠는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오더니 제 멱살을 심하게 움켜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더러운 독사 같으니라구,,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로 저를 힐책했습니다. 진짜 저를 비난하더군요. 비난을 되 받아 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불쌍한 여자는 내가 알기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But this poor young kid didn't know what happened, you know. I mean, his eyes got big and he just --he was just telling me, you know, how much he'd enjoyed the message and how it spoke to him, and all, and she comes up with all of this and his eyes get big and all. And John got hold of her and dragged her off as she was railing, going around the corner, you know. John dragging her. And this kid said,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I was --I was ready to do something. He said, Boy, you really handled that well, you know. Well, the thing is I know the woman; I know her problems. But it is so easy to rail back. But there's an interesting proverb that says, "A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Proverbs 15:1).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그 젊은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그 말씀이 그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그걸 나누고 있었는데 그녀가 나타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젊은이의 눈이 놀라 휘둥그레 진 것입니다. 그녀가 계속 저를 비난하고 있을 때 존이 그녀를 붙잡아, 구석으로 데려 갔습니다. 우리 모두 붙들려 가는 걸 다

보았죠. 한 젊은이가 말하길, “ 저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대응 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 여자를 잘 압니다. 그 여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비난을 되돌려 주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 15:1)

Now I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several years ago. It was during the height of the hippie thing around here where these hippies had these old vans and held together with bailing wire, you know; material things didn't mean anything to them, paint all over them. And I was going down Fairview and one of these hippies pulled out in front of me. And one of these old vans --and it died, just as he got in front of me. And he, it was dangerous moving, I mean, he shouldn't have pulled out in front of me, but he did and the thing died. And there were traffic coming on my left where I couldn't get around him, so I just laid on my horn. And I was really upset. And this hippie kid, you know the beard and the whole thing, got out of his van and he looked back at me and just came with a peace sign, you know. 또 몇 년 전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 히피 문화가 성행할 때인데, 젊은 히피들이 낡은 밴에 이것 저것을 철사 줄로 칭칭 묶고 다녔습니다. 그들에게 가구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온갖 것을 페인트칠로 해서 다녔습니다. 나는 교회 앞길을 따라 운전하며 가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내 앞으로 튀어 왔습니다. 그 낡은 밴들 중에 하나 였죠. 그러더니 바로 내 앞에서 멈췄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죠. 그렇게 튀어나오더니 바로 내 앞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내 왼쪽으로 차들이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 제가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운전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있었죠. 지저분한 턱수염에 이것 저것 걸친 이 히피 청년이 차 밖으로 나와 나를 한번 뒤돌아 보더니 평화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You know suddenly I felt real terrible about laying on my horn and the attitude that I had. I mean, here's a --here's a kid, you know, high in LSD telling me, Peace, brother. And here I'm supposed to be a minister telling people how to have peace, and I'm all upset because of this stupid move of his. And it really ministered to me how that a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I mean, I was ready to tear him apart. And just how it all vanished. Just you know, if he had gotten out railing, I'm sure I would have jumped out of the car and ran up and grabbed him and told him what a stupid move that was, you know. But his attitude was such that, you know, I --I just sort of chuckled to myself and said, Well, why not have peace, you know. 나는 갑자기 내가 그저 운전대에 기대고 있기만 한 것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런,, 조무래기 같은 녀석이.. 그런데 그가 환각제에 빠진 채로...평안할지어다 형제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행동에도 화가 났습니다. 사역자로써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온통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드러운 말로 이 분노를 쫓아 버릴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지금 내게 주어진 중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를 박살 낼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이젠 어떻게 이 분노들을 모두 날려 보낼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욕을 해댔다면, 나는 차 밖으로 뛰어나가 달려가서 그 녀석을 붙잡아 놓고 ‘네 녀석이 얼마나 어리석게 해 놓았는지 좀 봐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어떤 개념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래.. 뭐,, 평안하지 못 할거야 없지...으휴’ 하며 그냥 킬킬거리고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하시겠습니까?

So don't render “railing for railing”. That only creates, you know, that only builds and let's you read, you know --there's so many nuts on the highway today. You know you get out and rail at someone, this guy's going to pull a gun at you. Have you heard some of these things that are happening on the road? I

mean, it's getting dangerous living. 나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납니다. 그저 발생되지요. 오늘날 고속도로에 가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이 차에서 뛰쳐나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 그 사내는 총을 뽑아 들고 여러분을 겨누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길에서 비일비재 하다는 것은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제 점점 더 위험해 진다는 뜻일 겁니다.

contrariwise blessing (3:9); □□□ □□ □□

And really, that's what the kid did; Bless you, peace, brother, shalom. 그 히피 소년이 내게 했던 대로 복을 빌라는 뜻이겠지요? 평강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knowing that you are thereunto called, that you should inherit a blessing (3:9). □□ □□□ □□□ □□□□ □□□□ □□ □□ □□□□ □□ □□ □□□□

We ought to be seeking to bring blessings to people. So “bless those that curse you,” Jesus said. “Do good to those who despitefully use you” (Matthew 5:44). This is what we've been called to do.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5:44)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For he that will love life, and see good days (3:10), □□□ □□□□ □□ □ □□□ □□□ □□

Now here Peter goes back and just quotes a portion out of the psalms. And again, it is interesting to me because it shows us Peter's good working knowledge of the Scriptures. And as he is writing in his own little exhortations here, he goes back and he quotes a portion of Psalm 34, about three or four

verses out of Psalm 34. “He that would love life, and see good days,” 이제 베드로 전서로 다시 돌아가는데, 시편에서 인용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절은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잘 준비된 지식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특유의 간곡한 말로 편지를 쓸 때, 시편 34편의 말씀 중 3- 4요절들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시 34:12)

let him refrain his tongue from evil, and his lips that they speak no guile: Let him turn away from evil, and do good; let him seek peace, and pursue it.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ver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unto their prayers: but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em that do evil (3:10-12).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You want to have a good life, you want to see good days, these are -- these are the rules: Just “keep your tongue, refrain it from evil, speaking evil, and your lips from speaking deceitfully. Turn away from evil, do good. Seek peace, pursue it.” You’ll have a good life. 여러분은 좋은 삶을 살기 원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규율이 있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러면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And who is he that will harm you, if you are followers of that which is good? But and if you suffer for righteousness' sake, happy are ye: and be not afraid of their terror, neither be troubled (3:13-14);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He's moving into a new section in which he is going to be talking about suffering, and for the most part suffering wrongfully, suffering for righteousness' sake. You remember when Peter was arrested for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nd they beat him and told him not to preach anymo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Peter and his friends went away rejoicing that they were counted worthy to suffer that kind of persecution for Jesus.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새로운 주제, 즉 고난에 관하여 얘기하려고 합니다. 심한 고통을 억울하게 받는 것이지만 의인이기에 받는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맞았고 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가 받은 박해와 고통을 자신들이 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됨을 기뻐하며 왔습니다.

Now Peter's telling us the very same thing. In other words, Peter is not preaching something he didn't practice, but he did this very same thing himself. When he was suffered for righteousness' sake, he rejoiced, "Happy are you." Jesus said, "Blessed are ye," and the word "blessed" is happy; "when men persecute you, and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for my sake. Rejoice, and be exceeding glad: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Matthew 5:11-12). There's where you have to get the right perspective. You have to look onto the heavenly future. 베드로가 전하는 바는 그가 연습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똑같이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그는 '복 있는 자라'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복이 있을 찌어다' 라고 했지요. 그 '복' 이란 단어는

행복이란 뜻입니다. ‘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 (마 5:11’12) 여기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바른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So “if you suffer for righteousness’ sake, happy are ye: be not afraid of their terror, neither be troubled; But sanctify the Lord God in your hearts (3:14-15):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Give a special place for God in your life.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and be ready always to give an answer to every man that asks you for the reason of the hope that is in you with meekness and reverence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So live the kind of a life that is an example that will provoke people to question you. What makes you different? Why is it that you are not upset over

this? “Be ready to give to every man an answer for that hope that you have.”
이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본보기가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당신을 변화 시켰습니까? 어째서 당신은 이런
일에도 화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줄 답변을 준비
하십시오.

Having a good conscience; that, whereas they may speak
evil of you, as of evildoers, they may be ashamed that falsely
accuse your good behavior in Christ (3: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Or lifestyle in Christ.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을 욕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For it is better, if the will of God be so, that you suffer for
well doing, than for evil doing (3:17). □□ □□□□ □□ □□ □□
□□□□ □ □□□ □□ □□□□ □□ □□ □□□ □□□□

That’s always a better thing. If you suffer for evil doing, you’ve got it
coming. But if you suffer for well doing, then that is a better thing.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언제나 더 나은 삶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함으로
고통 당할 때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만, 만일 선한 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악한 일을 행하여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For Christ also hath once suffered for sins (3:18),

□□□□□□□□ □□ □□ □□□ □□□

He's referring, of course, to the cross. Jesus went to the cross and died there for your sins. 18절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the just [died] for the unjust (3:18),

□□□□□ □□□ □□ □□□□□□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2 Corinthians 5:21).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도 말씀하듯이, □□□□ □□ □□□ □□□ □□ □□□ □□□□ □□ □□□ □□ “The just for the unjust,” □□□□□□ □□□ □□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that he might bring us to God (3:18),

□□ □□□ □□□ □□□ □□□□ □□□□

The purpose of the cross is to put away our sin, which had separated us from God. The effect of sin is always alienation from God. You see, God created you in the beginning for fellowship. He wanted you to be one with Him, but a holy, pure, righteous God cannot be a part of sin, in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God. So man fell into sin; as the result, lost fellowship with God. The purposes of God was thwarted by sinful man.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우리들의 죄를 없이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이간시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 이전부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기 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참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일부분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분과 상반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악한 인간들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So in order that man might have fellowship with God, these purposes of God restored, Jesus suffered once for our sins, "the just for the unjust", that He might be able to bring you to God. That He might be able to wash and cleanse you from your sin in order that you might have the purposes of God accomplished in your life as you fellowship with God.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좌절된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 의롭지 않은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의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었죠. 그가 우리를 우리들의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되도록 허락 하심은, 그 분과의 교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려는 의도입니다.

being put to death in the flesh, but he was made alive by the Spirit: By which also he went and preached unto the spirits that were in prison; Which sometimes were disobedient, when once the longsuffering of God waited in the days of Noah, while the ark was being prepared, wherein few, that is, eight souls were saved by the water (3:18-20).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 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Jesus preached to the souls in prison. Now in the prophecy concerning Jesus, in Isaiah 61, says,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preach the good tidings to the meek;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he opening of the

prison to those that are bound” (Isaiah 61:1). 예수께서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이 예언은 예수님을 암시하는 말로써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사61:1)

What is he talking about? The prison was death by which men were bound. They were held captive. Jesus came to open the prison to those that are bound, or to open up Hades to those people who were bound there, who died before Jesus died for our sins. So when He died, He descended into hell. And He preached to those souls that were in prison. And when He ascended out of hell, He brought with Him those who had been captive. 무엇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혀 감옥에 갇힌 자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힌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로 잡힌 자들의 옥문을 열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 당하신 예수가 그의 죽음 이전에 죽은 자들이 잡혀있는 하데스의 지옥 문을 열기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셨을 때, 그는 지옥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 지옥의 감옥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가 지옥으로부터 올리우셨을 때, 그는 그곳에 매여있던 자들을 그와 함께 올리우신 것입니다.

In Ephesians chapter four, Paul tells us that “He who has ascended is the same one who first of all descended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And when he ascended,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Ephesians 4:8-9).

예베소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Luke’s gospel, the sixteenth chapter, Jesus describes what hell was like prior to His death: Two compartments, no capacity of crossing from one to the other. One was a place of torment; the other was a place of comfort. Those who died in faith went to the place of comfort and were comforted by father Abraham. They are the ones to which Jesus preached when He descended into hell. But “God did not leave his soul in hell, neither did he allow the Holy One to see corruption,” but this same Jesus has God raised from the dead (Acts 2:27). 누가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의 지옥이 어떤 곳인지 묘사하셨는데, 그곳은 두 공간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한 곳은 고통을 주는 장소이고 다른 한 곳은 아주 평안한 곳이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평안한 장소로 가고 아버지 아브라함 으로부터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지옥에 내리 워 졌을 때 그의 말씀으로 인해 지옥에서 올려진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 이로다” 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And Matthew’s gospel chapter twenty-seven tells us that the graves of many of the saints were open and they were seen walking in the streets of Jerusalem after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So opening the prison. 또 마태복음 27장은 기록하기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들의 감금상태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옥 문이 열린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The like figure where unto even baptism doth also now
save us (3:21) 물은 □□ □□□□□ □□ □□□□ □□□□ □□ □□□
□□□□ □□.. □ □□□

That is, “the eighth --eight souls saved by water,” “The like figure” .

So they were saved by the water or by the ark in the water. Even so, “Baptism,” Peter says, “saves us.” But then lest people make a mistake, he points out; it isn’t the physical ritual. 20절 말씀에 8이란 숫자는 하나의 상징으로 홍수 가운데서 구원 받은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의 영혼을 뜻합니다. 그들은 물로써,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써 구원을 얻었지요. ‘곧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라’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육신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t isn’t the washing away of the filth of the flesh, but it is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3:21): □□□ □□□ □□ □□□ □□□ □□□ □□ □□
□□□ □□□□ □□□ □□□□ □□□

So the true baptism is a matter of my heart. Now I do believe that every 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should be baptized in water. I definitely believe in water baptism and I personally believe in water baptism by full immersion. But I do believe that water baptism by full immersion is only a symbol of the work of the Spirit that has transpired within my heart. The old

man being dead now buried in water and the new life that I now have, the life of the Spirit through Jesus Christ. Baptism becomes a beautiful symbol of that. As I go down in the water, it's being buried. The old life just being buried; and as I come up out of the water, it's that new life in the Spirit, in Christ. And it becomes a beautiful symbol. 진정한 세례는 양심의 문제이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침례를 믿으며, 나 개인적으로 완전히 침수됨으로 세례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나는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하심에 대한 하나의 상징인 것을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어 물에 장사 지내고 내가 지금 가진 새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침례의식은 하나의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내가 물에 내려 갈 때, 내 육신은 물 속에 잠기는 것이지요. 옛사람을 이렇게 장사 지낸 후 다시 물 위로 올라 올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 나는 것입니다.

But if it has not happened in my heart, it cannot happen by the ritual. The ritual itself cannot save me. Now you may be baptized by sprinkling, by dunking, by full immersion, and still not be saved. You know, they could hold you down until you drown and it still won't save you. The rite of baptism doesn't save. It symbolizes that which has already transpired in my heart. If it hasn't transpired in my heart, then baptism is meaningless. In fact, it's worse than that; it is --it's almost condemning to me. 그러나 세례가 마음으로부터 가 아닌 그저 의식으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의식 그 자체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요. 물을 뿌릴 수도 있고 그저 적실 수도 있고 완전히 잠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침례의식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침례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요. 사실 이보다 더 나쁜 것을 듣자면 그것은 내가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Such as communion is condemning to the person who doesn't believe. The partaking of the bread and the cup, if you --if you don't believe in Jesus Christ, you're actually partaking your own damnation. You're witnessing against yourself. And "he that eateth and drinketh unworthily, eateth and drinketh damnation to his own soul,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1 Corinthians 11:29). 이것은 성찬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저주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적하여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29)

So the same if you go through the rite or the ritual of water baptism and it hasn't happened in your heart; it's only a witness against you. It doesn't save you. So I do not believe in what is called baptismal regeneration. I do not believe that if a person is not baptized, then they are not saved. I can't believe that; you're saved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Now because I believe in Jesus Christ, I want to obey Him and thus I am baptized as a sign of what has transpired already within my heart. But should I never get around to being baptized by some unfortunate accident or circumstances of some kind, I will still be saved. I have every confidence of that. "It isn't the putting away of the filth of the flesh," but it's that work of the Spirit within my heart, "the good conscience toward God,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것이 아닌, 의식적으로 혹은 의례상 침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여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으로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례를 통해 속죄가 된다는 이론은 믿지 않습니다. 또 나는 사람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복종하길 원하며, 벌써부터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의 증거로써 스스로 침례를 받은 것이지요.

Who is gone into heaven, and 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gels and authorities and powers being made subject unto him
(3:22).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 하느니라

Jesus, before He ascended into heaven said to the disciples, “All power is given to me in heaven and earth” (Matthew 28:18). Have you ever imagined how much power that must be? Look at the universe. Think of the power that brought it into existence. “All power,” He said, “is given to me in heaven and in earth.” And so He ascended to the right hand of God; the angels, the authorities, the powers, the ranking of angels are all subject unto him.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 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28:18)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상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우주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존재케 만드는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하길 ‘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셨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과 또, 모든 계급의 천사들은 모두 그를 위한 것들입니다.

Forasmuch then as Christ hath suffered for us (4:1)

□□□□□□ □□ □□□ □□□ □□□□□□

That is, has gone to the cross.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지요

in the flesh, arm yourselves likewise with the same mind:
for he that has suffered (4:1) □□□ □□ □□□□ □□□ □□□ □□
□□□ □□□ □□ □□ ..

Or come to the cross as far as His flesh is concerned. 그의 육신만큼은(육신에 관한 한) 십자가로 나아간 것입니다.

hath ceased from sin (4:1); □□ □□□ □□

Now this is the same rationale that Paul had in Romans chapter six. As far as baptism is concerned, as far as my old man being crucified with Christ, dead, buried in the water of baptism; as I come up it's the resurrection, it 's the new life in the Spirit. And they who are really living the new life in the Spirit have ceased from sin. Paul said, "How are we, who are dead to sin, going to live any longer therein" (Romans 6:2). John tells us in his epistle, and we'll be getting that a couple of weeks, that "whos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practice sin" (1 John 3:9), because we have God's seed now in us. We've been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and we cannot practice sin.

이것은 바울이 말한 로마서6장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됩니다. 침례에 관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에 잠김으로 장사 되어 죽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내가 부활로써 일어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죄로부터 단절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롬6:2)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언급하기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범죄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Now if you are living a life of practicing sin, then you have better take inventory. The Bible says, "He that thinks he stands take heed lest he fall" (1 Corinthians 10:12). "There is a way that seems right unto man, but the end thereof is the way of death" (Proverbs 14:12). Whos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practice sin. We've been born of a new nature, not a sinful nature anymore. You can't lay it on the past, the old nature, because that nature died. And whosoever then has come to the cross has suffered and that is, co-crucifixion with Jesus. "I am crucified with Christ" (Galatians 2:20). Is then dead to the old life of sin. The flesh hath ceased from sin.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죄 가운데 생활한다면 한번 그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전10:12)절 말씀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고 또 (잠14:12)절 말씀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계로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로 거듭났지, 더 이상 죄 된 자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옛사람 가운데에 거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으로 난 것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로 나아온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 2:20) 죄 가운데 있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육신은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That he no longer should live the rest of his life in the flesh following the lusts of men, but he is to live now to fulfill the will of God. For the time past of our life may suffice us to have wrought the will of the heathen, when we walked in lasciviousness, and lusts, in the excess of wine, in revellings, in banquetings, and abominable idolatries: Wherein they think it strange now that you do not run with them to the same excess of riot, speaking evil of you (4:2-4):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벧전4:2-4)

So it used to be that we lived the unbridled life of the flesh; a life of lasciviousness and unbridled lust, revellings, the excess of wine, banqueting, abominable idolatries. A good description of the world scene. And those that are in the world think it's strange that you don't do it anymore. What do you do for fun now, man? You ever had them ask you that? You know, what do you do for fun? You know, you don't get bombed out of your head and make a fool of yourself. So what do you do for fun? And they say, "Ah man, he's got religion, you know, he's no fun anymore." They speak evil of you. But they are going to have to give an account to God themselves. Every man must appear before God, give an account. 우리의 살아온 삶은 방종한 육신적 삶이었으며, 음탕하고 고삐 풀린 짐승처럼 최악 된 삶이요, 향락의 삶이며, 술 취함과 연회와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우상숭배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잘 묘사해 놓은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더 이상 그것에 흥미가 없다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즐거움을 얻습니까? “무슨 낙으로 살아?” 혹시 같이 즐기던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 본 적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일이나 머리가 터지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뭐가 즐거운가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아,, 이 사람 예수쟁이로군,, 이제 이 사람은 재미란 게 없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할 것을 생각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며 살아온 날들은 셈하여야 할 것입니다.

They're going to have to account for their lives before the One who will judge both the living and the dead. It's an awesome thing to realize that one day each man will stand before God to be judged. And those that have lived a life of riotousness, lasciviousness, are one day going to have to answer to God for a totally wasted life. What did you do with your life? And they've taken God's precious gift, the gift of life, and they've wasted it. Wasted it upon themselves, upon their own lust, their own desires.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심판하실 이 앞에서 그들의 살아온 삶을 셈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심판 받기 위해 선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폭력적이고 음란한 삶을 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전부 낭비해 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순전한 은혜들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그들의 삶을 헛되이 낭비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정욕으로 살아온 삶을 낭비한 것입니다.

For for this cause was the gospel preached also to those that are already dead, that they might be judged according to men in the flesh, but live according to God in the spirit. But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be ye therefore sober, and watch unto prayer (4:6-7).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The church has always lived in the consciousness that we are in the last days. And in a sense, that is always true. Every generation is the last days. I'm living in my last days, you know, I'm going to go. If the Lord doesn't come to take the church, it's going to be the last days for me one of these days. You know, who knows? Twenty, thirty, five years from now? Last days. 교회는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살아 왔습니다. 이 인식은 항상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이제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도 물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요. 나는 갈 곳을 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지 않는다면, 이 날들 중의 하루는 나에게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5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You know, our days are all limited. When I was a young person it seemed like, you know, life was forever; but now you begin to number your days because you want to use what time you have to the best advantage for the kingdom of God. So that's basically what Peter is saying. He's getting older now and he is coming from a more matured view.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And it was for Peter, not long after this, he was beheaded by Nero. "Be therefore sober, watching and praying." 우리들의 삶은 모두 한시적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자신의 날들을 세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최고로 유익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그는 이제 더 늙어 가고 있고 더 성숙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은 이제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네로에 의해 참수를 당하게 될 것이 그의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흐느끼며,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And above all things have fervent love among yourselves
Among the body of Christ there should be a fervent love. for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4:8).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How true that is. How many things we can just overlook if we love hard enough. How many things we don't see because we love, and how many things we can see when we hate. I mean, we watch like eagles. And every little thing

we're ready to pounce on. But love fervently in the body of Christ. 얼마나 진실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것을 그저 바라 보기만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데 볼 수 없으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미워할 때 봐야 합니까? 그래서 때론 우리들은 날카로운 독수리같이 쏘아봅니다. 많은 하찮은 것들을 향해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여 그리스도의 몸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Be hospitable one to another without grudging. As every man hath received the gift, even so minister the same one to another, as good stewards of the manifold grace of God (4:9-10).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Now God has given to each of us gifts, and interestingly enough, there was a gift of hospitality.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have that gift of hospitality and they make marvelous hosts and hostesses. You know, they can just have anybody in and they just have that gift of hospitality. Others don't have the gift of hospitality and it's a strain whenever people come over; they get tense, they get nervous. And if you ever seen the person with the gift of hospitality; hey, they don't worry about what they're serving, nothing bother them. They don't have to be perfect, just lay it out on the table. Everybody grabs what you want, you know, and you'll feel comfortable. But those that don't have the gift, you go there and you feel strain, you know. I want to make sure you'll eat proper and spill in my shirt, you know, and you only take one of the little hors d'oeuvres and you know. And you always feel under pressure.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의 하나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들은 굉장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그저 누구든지 초대하고 섬김을 베풁니다. 이러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마다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안절부절

못하죠. 여러분이 종종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들이 뭘 차릴지 전혀 걱정도 않고 귀찮아 하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뭘 꼭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라 그저 식탁을 차리는 것 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고 싶어하고, 그럼 편하다고 느끼니까요. 한편,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그런 곳에 가면 좀 불편해 합니다. 긴장하게 되고, 점잔을 빼고 먹어야 하는 것이나, 셔츠에 뭐라도 없지 않을까 조바심을 낼 것입니다. 그저 밖에 있는 과일이나 야채를 하나 집거나.. 어쨌든, 항상 걸도는 부담감 있습니다.

But we each of us have various gifts. Use your gifts for the whole body's sake, that the body might be benefited by the gifts that God has given to you, being good stewards of that which God has entrusted to you. God has given to each of us, entrusted to us gifts, abilities, talents. Now I want to be a good steward of that which God has given to me. I want to use it, use it well. It's been entrusted to me and I'm responsible. 하지만 우리 각자는 아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교회의 몸을 위하여 사용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로 그의 몸 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원 하시며, 그분이 신임하시는 여러분들로 당신의 청지기를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그분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 분이 나를 신뢰하시므로 나는 그것을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And if any man speaks, let him speak as the oracle of God (4:11); (Or as a spokesman for God.)if any man ministers [that is, serves], let him do it with the ability which God gives to him (4: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That's so important, you know. You can't be more than what God has enabled you to be. So just do it with the ability that God gives you and then don't worry about it. You've got to learn to just do our best and then just commit the rest.

Now this is hard for a person who is a perfectionist. They do their best and then they worry about the rest. Why didn't I say this? Why didn't I do that? Oh, did I do the right thing? Oh, you know. And they're constantly worried about what they have done. Hey, was it your best? Oh my, yes you know. So, let it go. God doesn't require more than your best. So "whatso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to the glory of God" (1 Corinthians 10:31). So "if you speak, speak as a spokesman for God. If you minister, do it with the ability God gives."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것 이상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만큼의 능력만 행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비로서 배울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주의 자들에게는 몹시 힘든 일이겠지요.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한 후에, 걱정하느라 안식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아,,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최선을 다한 게 아니던가요? '그냥,, 되어지는 일을 지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선, 그 이상을 요구하시진 않으니까요. (고전 10:31)절 말씀입니다 '□□□ □□□ □□□ □□□□ □□□ □□□ □ □□□□ □□□ □□□ □□□'. "□□ 여러분이 □□□□ □□□□ □□□ □□ □ □□ □□ □□□□ □□□□ □□□□□ □□□ □□ □ □□ □□□□□."

that God in all things may be glorified (4:11) □□□□ □□□

□□□□ □□ □□□

You see, it isn't to bring glory to you. As we minister, we need to minister to bring glory to God.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사역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합니다.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 praise and dominion for ever and ever. Amen. Now beloved, don't think it's strange concerning the fiery trials which are going to try you, as though some strange thing happened unto you (4:11-12):

□□□ □□□ □□□ □□□ □□□□ □□□□ □□ □□□□ □□□ □□□ □□ □□□ □□
□ □□□ □□□ □ □□□ □ □□ □□□ □□□ □□

Boy, one of the weirdest things happened to me the other day. I went through one of the worst trials. Hey, no, no, no; it's not strange the fact that your faith is going to be tried. 나의 삶에도 온 정신을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장 혹독한 전쟁을 치루곤 하죠.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피곤해 지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Rejoice, inasmuch as you are partakers of Christ's sufferings; that, when his glory shall be revealed, you may be glad also with exceeding joy (4: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Jesus is coming again to be revealed in glory before the world and those that are His will, He bring with Him at His coming. Great gladness and joy, exceeding joy in that day when we come with Jesus to establish God's kingdom upon the earth. And so rejoice that we were able to suffer with Him that we might reign with Him.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올 때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됨을 기뻐 하십시오.

If you're reproached for the name of Christ, oh, how blessed you are; for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is resting upon you: on their part he is evil spoken of, but on your part he is glorified. But let none of you suffer as a murderer, or as a thief, or as an evildoer, or as a busybody in other men's matters (4:14-15).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In other words, there are things that you are blessed for suffering for, and there are things that you're not so blessed if you suffer for them. If you're a thief and you're caught and you, you know, get sent to jail, it's no big glory in that.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인 만일 고통이 없다면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도둑이기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보내졌다면 그것은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Yet if any man suffers as a Christian (4:16), □□

□□□□□□ □□□ □□ □ □□□□ □□

Jesus said, Persecuted for my sake and the gospel's. 예수님은 오히려 '내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셨지요.

let him not be ashamed; let him glorify God on this behalf

(4:16). □ □□□□ □□□□ □□□ □□□

And of course, in those days many of them were put in prison for being Christians. Now if you're put in prison because you're a murderer, no big glory. But if you're put into prison because you're a Christian, then you know, rejoice; that's great, that's good. Now if you were arrested for being a Christian, could they find enough evidence to convict you? Something to think about.

물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살인자이므로 감옥에 갇혔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 이므로 감옥에 갇혔다면, 그러면, 여러분이여,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놀랍고 영광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때문에 체포되어진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유죄로 판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For the time is come that judgment must begin at the house of God: and if it begins with us, what shall the end be to those that obey not the gospel (4:17)?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I mean, if God is going to judge the believer, what about those who don't even believe? 하나님이 믿는 자를 심판하신 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And if the righteous scarcely be saved, where will the ungodly and the sinner appear? Wherefore let them that suffer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commit the keeping of their souls to him in well doing, as unto a faithful Creator (4:18-19).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 할찌어다

Now this suffering, of course, is going back, the whole context is suffering persecution because you're a child of God. And if you suffer persecution because you're a child of God, then just commit your life to God, the keeping of your souls to God. He's a faithful Creator. And you've got to just learn to just commit yourself. 성경은 전체 맥락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박해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박해로 고통 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위탁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는 성실하신 창조자 이니까요.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그 분께 위탁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Now the elders [the overseers] which are among you I exhort, because I am also an elder [or an overseer, an older man], and I am a witness of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I'm also a partaker of the glory that shall be revealed (5: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Peter witnessed the death of Jesus Christ. I was a witness, he said. And also he was a partaker of the glory.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he saw Jesus transfigured,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Him of the things of the

kingdom. And Peter was so stoked by this experience. He said, Oh Lord, you know, let's just build three tabernacles, let's just stay right here. You know, let's not go down from this place. This is beautiful. Let's live in the kingdom. I don't want to get back to that old world. Let's just live here in the kingdom, the glory. I was a partaker of the glory that's going to be revealed. The Lord sort of took him in a time machine on out to the future, the glory of the kingdom and he was a partaker for a time in it. His exhortation,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증거 했습니다. 그는 '나는 증인입니다. 그는 영광에 참여할 자였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변화선상에서 그는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으로 완전히 황홀경에 빠졌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주여 여기가 종사오니, 이것에 초막 집을 3개 짓고 여기 머물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서 내려가면 안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그의 왕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옛 세상으로 전혀 되돌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의 왕국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곧 나타날 그 영광의 참여할 자 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타임 머신에 그를 태우고 이 시간에서 저 세상으로 이동하면서 천국의 영광과 그가 그 영광에 참여하실 그 때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권고 하고 있습니다.

Feed the flock of God which is among you (5:2), □□ □□

□□ □□□□ □ □□□ □□

When Jesus confronted Peter in the twenty-first chapter of John, after His resurrection, He told the disciples to meet Him in Galilee. And they came up to Galilee and Jesus didn't show up, and Peter said, Well, I'm going to go fishing. The others said, Ah, we'll go with you. And so they went out and they fish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And on the morning, Jesus was standing on the shore and He called out, He said, Catch anything? Nah. Why don't you throw

your nets out on the other side? And so they threw their nets out on the other side and immediately the nets were full of great fish, so heavy they couldn't even pull them into the boat. Now when John saw that they couldn't pull in the nets because of the multitude of fish, he said to Peter, It's the Lord. 요한복음 24장에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면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왔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고, 베드로는 그저 고기나 낚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 나섰죠. 그들은 바다로 나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강기슭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시길 '뭘 좀 잡았느냐? 그물은 좀 다른 쪽으로 던져보지 그래..'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갑자기 커다란 고기가 가득 잡혀 그들은 그물을 배로 끌어 올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고기들로 가득찬 그물을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And so Peter grabbed his fishing coat because he was naked, he dove in and swam ashore. The other disciples got in a little rowboat and they rowed on into shore dragging the net with them. And when they got to shore, they found that Jesus already had a fire built, there were coals, bed of coals, and He had some fish on them. And He said, Come on and eat. And then He said to Peter, "Peter,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Now the "these" is a problem. Was Jesus talking about the fish, or was He talking about the disciples?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겹옷을 움켜 쥐고 물에 뛰어들어 강기슭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그물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벌써 불을 피워 놓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석탄 위에다 물고기를 굽고 계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어서

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에게 물으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이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에 관해 얘기하신 겁니까?

You see, the last time before His death that He was having a conversation with His disciples, He said, All of you are going to be offended tonight because of Me. And Peter said, Lord, though they are all offended, I will never be offended. So basically Peter was saying, Lord, I love You more than they do. Though they're all offended, I'll never be offended. He's bragging. And Jesus said, Peter, before the cock crows, you'll deny Me three times. They could kill me and I'll never deny You. And so he's, in a sense, saying I love You more than them.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너희 모두는 오늘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길,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길, 주는 저는 이 모든 사람들 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장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 하리라. 말씀하셨죠. '아뇨 그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했는지,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And so Jesus could have been indicating the disciples,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Peter? Or He could have been talking about those fish because they represented the old life, the life from which you've been called. And catching 153 great fish with one toss of the net is pretty much the epitome of success in your old chosen field. Peter, do you love Me more than the epitome

of success in your chosen field? Either one is a very probing question. And (Jesus said), Lord, you know that I, I'm very fond of You. And Jesus said then, Feed My sheep. Three times He asked the question and it could be because Peter denied Him three times that He was giving him three times an opportunity to say, Yes, Lord, I love You. But each time Jesus responded, Feed My sheep.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 질문의 이 '모든 것들'이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암시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삶이 아닌 옛 생활로 되돌아가 지금 잡은 고기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그물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번 버렸던 것이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전에 방식으로 얻으려는 '성공'을 축소해 놓는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너의 예전 방식으로 추구했던 성공의 전형물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양쪽 다 속을 꿰뚫어 보는 질문이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3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번 대답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Jesus had said to Peter one time, Peter, Satan has desired you that he might sift you as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And when you are converted, strengthen your brethren. Feed My sheep. That was the calling that God gave to Peter. And that is the peak, the calling that Peter now passes on to the elders. And I do feel that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hortations to any and all ministers is to "feed the flock of God which is among you."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까부르듯 하려 하여 여러 번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 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1,32)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지금이 그 부르심의 최고 절정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내게 속한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은 어느 사역자나 누구에게든지 가장 중요한 권고요 훈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that is the perennial call of God to every minister, to feed the flock of God. And I think one of the greatest tragedies in the church today is that there are so few pastors who really feed the flock of God with the Word of God that will nourish their souls unto eternal life. You know the flock of God gets fed all kinds of hodgepodge. You know you can go to church and get good doses of psychology, and philosophy, but to really just be fed the Word of God is a rare thing. "Feed the flock of God which is among you." 하나님의 양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커다란 비극이라면, 극히 소수의 목회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고 그들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양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양들은 아주 엉망진창의 뒤범벅으로 먹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철학, 온갖 좋은 것을 들을 수 있지요. 하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 하십시오.'

taking the oversight, not by constraint (5:2), □□□□□□ □□
□□ □□ □□□□ □□ □□ □□□□□□ 하고

but willingly; and not for filthy lucre's sake, but of a ready
mind (5:2); □□□ □□ □□□ □□ □□ □□ □□□ □□□ □□

That is, not under pressure.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He's warning against professionalism in the ministry. Warning against an emphasis upon money. Warning against really the prostituting of the gifts of God for your own enrichment. "Not for filthy lucre, but of a ready mind." 베드로는 사역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강조하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남용하는 은사 남용주의를 대적합니다.

Neither as being a lord over God's heritage (5:3), □□□

□□□□ □□□□ □□□ □□ □□

The Shepherding doctrine concept; warning against that.

목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겠지요.

but be an example to the flock (5:3). □□ □ □□□ □□ □□

That was Paul's exhortation to Timothy, wasn't it? "Be thou an example unto the believer" (1 Timothy 4:12). And the minister should indeed be an example of that which he declares to the people.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권고한 내용이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딤후4:12) 사역자들은 참으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And when the chief Shepherd [that is, Jesus Christ] shall appear, you will receive a crown of glory that fades not away (5:4).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Now there are promises of the crown of life in the scripture and here is the promise to those who minister to the body of Christ, a crown of glory. 말씀에 보면 면류관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몸의 사역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들이지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Likewise, ye younger, submit yourselves to the older men.

Yes, all of you be in subjection to each other, and be clothed with humility: for God resists the proud (5:5),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Now you want God to be resisting you? It's interesting how that throughout the whole Scriptures, God has such abhorrence towards pride. And yet pride is such a common thing among men. "God resists the proud." Six things God hates: yes, there are seven that are an abomination unto him: "A proud look" (Proverbs 6:16-17). God hates it; it's an abomination. "Pride goeth before destruction,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Proverbs 16:18). 하나님께 저항하고 싫으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실 교만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 하시니라' 잠언6장 16,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욕 칠 가지니 거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거만한 눈을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Be clothed with humility for God resists the proud but He, gives grace to the humble.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and he will exalt you in due time (5:5-6):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Humble yourselves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shall lift you up” (James 4:10). “He that exalteth himself shall be abased; but he that humbleth himself shall be exalted” (Matthew 23:12). So much is said concerning our attitudes towards ourselves, which is reflected in our attitudes towards others.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4:10)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23:12) 다른 사람들에게 비취지는 우리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반영되므로 우리의 행동이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Casting all your care on him; for he careth for you (5:7).

□□ □□□ □ □□ □□ □□□ □□ □□ □□□ □□ □□ □□□

Two different Greek words. The first one should be translated perhaps anxiety. Casting all your anxieties upon Him. The second Greek word is used as of a shepherd watching over his flock. For he is watching over you with concern, loving concern. So “casting all of your anxieties on him; because he watches over you with loving concern.” 두개의 다른 그리스어가 이 문장에 있는데, 첫째 것은 염려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항상 주의하여 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돌보시니 너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Be sober, be vigilant; [On guard.] because your adversary the devil, as a roaring lion, is walking about, seeking whom he may devour (5:8): □□□□ □□□ □□ □□ □□□ □□ □□ □□ □□ □□□ □□ □□ □□□

The sons of God were appearing before God in the book of Job, chapter one, and God --Satan also came with Him; and God said to Satan, Where have you been? And he said, Going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walking up and down in it. Here Peter tells us that your adversary, the devil, walking around like a roaring lion, just looking for whom he can devour. You have to be on guard. Be sober, be on guard and resist him. 읍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1장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이 그의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 어디를 다녀 왔느냐’ 하시자 사단이 대답하길 ‘ 세상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 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대적 하는 자,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경호원이 필요합니다. 근신 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Whom resist stedfast in the faith (5:9), □□□ □□□ □□ □□ □□ □□□□

Remember in our lesson in James,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James 4:7). 야고보서의 말씀을 명심하여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

Now there’s an interesting thing about our own mental attitudes. And we can be defeated before we ever get to a problem because we’ve taken that kind of a mental attitude towards it. And with Satan, we think of his power and his cunning and and all and we think, Oh man, Satan’s attacking me. You know, we

just sort of melt. You know, thinking, What can I do, you know; he's so tough, he's so powerful. And we don't resist. 정말 우리의 정신적인 태도에는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양상의 정신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다다르기도 전에 패배해 버리기도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힘과 그의 간계와 ,,아무튼 많은 것을 생각 합니다. 아이구.. 사탄이 나를 공격하네... 우리는 그저 녹아 내립니다. 그저 생각하길.. 내가 어찌겠나.. 저렇게 거칠구 강력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When I first moved from Ventura down here to the Santa Ana area, went to Santa Ana High School, and I was just in high school when we moved down and we had a fellow in high school his name was Bill Duffy, great guy, tremendous football player. 내가 처음 벤추라에서 이곳 산타아나로 이사 했을 때, 산타아나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이사했으니 학교에 전학을 간 것입니다. 그 학교에는 아주 유명한 풋볼 선수 빌 더프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And I went out for football and I was playing full back and we were having intersquad scrimmages and it was thirty-eight on two. And I was the number three back, and so that was my call to carry the ball around the right end. And I was headed down for a touchdown and Bill Duffy, man, and you know, he's ooh, Bill Duffy, everybody's just terrified at this guy, you know. And as he comes charging over and hits me and I just sort of just Oh, Bill Duffy, pleasure to be tackled by this guy. I mean, he's sort of, you know, he's really great. And I just --and the coach called me over and he really read me over. He said, you know, you didn't even resist; you just folded. What's the matter with you, Smith? You know and really read me the riot act for not trying to bowl him over. Well, you know, I was so awed by the name and by this guy. Of course,

after I played awhile with him, I found out that he's human just like anybody else. And so you do your best to smash him just like you do everybody else, you know. 나는 풋볼하는 팀에 들어갔습니다. 팀 자체 내에서 시합 중에, 나는 풀백으로 뛰었는데 점수는 38대2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3번 번호를 등에 달고 있던 내가 공을 잡아 오른쪽 끝으로 달리는데 앞으로 고꾸라지다시피 해서 겨우 목표에 다다랐을 때, 빌리 더프가 있었습니다. 빌리 더프, 그를 보기만해도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돌격하며 달려 오면서, 나를 쳤고, 나는 물론 그 친구한테 걸려 나자빠졌지요. 그 친구가 진짜 잘해낸 겁니다. 그 때, 코치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는 나를 정말 잘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척, 너는 밀어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더구나. 너는 그저 그 엘 껴 안았을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빌리를 때려 눕히지 못한 것에 대한 복잡해진 나의 마음이 읽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실 그 친구의 이름만 들어도 떨렸습니다. 물론 한참 그와 경기를 한 후에야, 나는 그저 그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악한 마귀가 왔을 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그걸 날려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But sometimes with the devil, we've got that same thing. Oh, the devil, we just crumble instead of resisting. "Resist steadfast." Hey, he's no match for you when you've got the power of the Spirit on your side. "Greater is he that is in you,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1 John 4:4). As Martin Luther wrote in his song, The prince of darkness grim, we tremble not at him. One little word will wipe him out. The name of Jesus. Hey, you got authority and power over him and he is no match for you in Christ. So "resist him steadfastly." Don't just give in.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Going about like a roaring lion, he scares us to death with his roar. But "resist steadfast in the faith," 때때로 우리는 악한 마귀와 이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이구! 무서운 마귀.. 우리는 대적하기는커녕 겁을 먹어 버립니다. '확신 있게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 그는 여러분에게 닿는 것조차 못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1서4:4) 마틴 루터가 자신의 찬양에 기록하기를, '이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로부터 왔으므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건드는 것조차 못합니다. 그러므로 '확신 있게 대적 하십시오 절대 항복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내어 쫓기리라' 표호 하는 사자처럼, 그는 그의 으르렁 거림으로 우리를 무섭게 하여 죽음에 몰아 넣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확신 있게 대적하십시오.

knowing that the same afflictions are accomplished in your brethren that are all over the world. But the God of all grace, who hath called us unto his eternal glory (5:9-10).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 □□□ □□□ □□ □□□□ □□ □□□ □□□ □ □□□□ □□□ □□□ □□□
 □□□ □□□ □□□ □□□□ □□ □□

Oh, I love that. The God of all grace, He has called you unto His eternal glory. Paul tells us that in the ages to come, He might be revealing unto you what is the “exceeding riches of his love and his kindness towards you in Christ Jesus” (Ephesians 2:7). He’s called you unto the eternal glory. Paul prayed for the Ephesians that they might know what is the hope of their calling. God has called you to eternal glory. He’s called you to share His eternal kingdom with Him in that glorious kingdom, world without end; kingdom of righteousness and love and peace and blessing. Joy eternal. “But the God of all grace, who has called us unto his eternal glory,”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바울이 이 시대에 온다면, 그는 우리에게 (예베소서2:7)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그 끝나지 않는 영원한 왕국, 공의와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축복이 있는 천국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하시므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기쁨 말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

by Christ Jesus, after you have suffered for a little while, make you mature (5:10), □□ □□□ □□ □□□ □□ □□□ □□□

And that’s the effect of suffering. It has a way of causing us to grow up. It has, as its effect, the maturing of our lives in Christ. 고난의 결과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합니다.

Stablishing you, strengthening you, and settling you (5:10).

□□ □□□ □□□ □□□ □□ □□□ □□□□

That’s our traits of maturity. 이것이 성숙함의 특징이 되겠죠.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 ever and ever. Amen

(5:11) □□□ □□□□□□ □□□ □□□□□ □□.

And so he ends his little epistle with this doxology. And now the rest is just sort of personal notes. 그는 그의 짧은 편지를 송영으로 끝냅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인 것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By Silas, a faithful brother unto you, as I suppose, I have written (5:12), □□ □□□ □□□ □□ □□□□□ □□□□ □□□□ □□□ □□ □□□

So Silas, who was the companion of Paul on many of Paul's missionary journeys, is now a companion of Peter. Perhaps Paul is in prison at this time and so Silas has gone with Peter, and he is the one who writes, does the actual writing of this epistle that was dictated to him by Peter. And Silas was known to a lot of these people because he had traveled with Paul. Peter had not known many of these people, but Silas, having been around with Paul, he's "a faithful brother unto you, as I suppose, and I have written briefly," 실루아노는 바울의 동역자로써, 많은 선교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제 베드로의 새로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시기에 감옥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쓴 장본인으로, 베드로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그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사람입니다. 실루아노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늘 바울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 알려지지 못했지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교'...

exhorting, and testifying that this is the true grace of God wherein you stand. The church that is at Babylon, that is elected together with you, greets you; as does Mark my son (5:12-13).이것이 □□□□ □□ □□□□ □□□□□ □□□ □ □□□ □□ □□ □□ □□□□ □□ □□□□ □□ □□□ □□□□ □□□□ □ □□ □□□ □□□□□□

And this is probably John Mark who was also a companion of Paul and of Barnabas and now is working with Peter. Peter at this time is writing

probably from Babylon, his epistle. 아마도 이것은 또 다른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였던 존 마크를 말할 것입니다. 그도 역시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일하고 있지요. 이 기간에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greet one another with a kiss of love [agape]. Peace be with you that are in Christ Jesus. Amen (5:14).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So, Peter's first epistle. Next week, we'll study the second epistle written about six years later. A lot of good exhortation in this epistle. The purpose is to bring us into spiritual maturity, into a life of strength and blessing and hope in Christ Jesus. And may we now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because that's self-deception. You've got to put it into practice for it to have any value in your life. 이것이 베드로의 첫번째 서신입니다. 다음주에 우리는 6년 후에 쓰여진 두 번째 서신을 공부할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권고의 말씀들이 이 서신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강건한 삶과 영적성숙으로 이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축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 기만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And I encourage you, read again this first epistle of Peter having now the background of the study. Let the Spirit of God now minister to you its truth as He brings to your remembrance those things that we have studied, and He enriches you in your walk and in your faith and in your life in Christ. 이 공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베드로의 첫번째 서신을 다시 한번 읽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성령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여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들을 기억해 낼 수 있게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과 그 걸음을 풍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and bless you, give you a good week. In Jesus'
name.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